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학문을 권함」

일본사를 이해하는 일은 일본을 이해하는 근본이 된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그 속알맹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사는 한국사의 반성 자료로서 중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서양세력의 침투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근대화를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끌면서 제국주의화 했음에 비해 한국사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식민지라는 암울한 역사상실을 당해야 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 정신사를 지탱해 준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을 권함」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쿠자와의 저서는 동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학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마치 한국의 북학파나 경세치용학과, 혹은 정다산 등의 학문과도 비슷하다. 또한 양계초나 노신과 같은 중국 실학정신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실학정신은 정신적 지주로서 실학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저서는 각편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두 편이 하나의 내용으로 된 경우도 있고 한 편에 독립된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초편에는 부제가 없으나 서구 계몽사조를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그는 서구의 자연법 사상, 천부인권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주안점을 둔 곳은 '학문의 유무가 국가 번부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 이었다. 특히 그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전통시대의 낡은 학문이 아니라 '실험실증의 학문'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2편은 '사람은 동등한 존재'라는 입장에서 천부인권을 다루고 있다.

3편은 '모든 국가는 동등한 것'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지표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구미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어떤 태도로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하는 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편에서 국가의 운명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일본 민족주의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4편과 5편은 학자의 직분 및 일

본 학도의 사명으로서 계몽사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6편의 '국법의 귀중함을 논한다'와 7편의 '국민의 직분을 논한다'는 사회계약설에 따른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당시 征韓論을 둘러싼 일본 정부 내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그의 강력한 경고적인 성격을 띠고도 할 수 있다. 이 편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 부정과 언론 존중은 후쿠자와가 갖고 있었던 끊임없는 주제였다. 9편의 '학문의 취지'나 14편의 '마음자세의 재고 정리', 15편의 '의문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라' 등은 학문의 본질과 목적을 여실히 그려낸 부분이다.

한국 근대사를 돌아볼 때, 근대사의 혁신적인 사상적 지주로서 실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서세동점기의 위기상황에서 일본, 중국 등 동양권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했던 문제해결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응 양상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동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지탱해준 정신적 동력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백여년이 지난 오랜 학문이지만 그 당시를 돌아켜 후쿠자와와 우리의 실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학문내용을 검증하는 일은 뜻깊은 일이다. 다만 오늘날 취사선택의 기준은 요구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한 흐름을 주도했던 개화 사상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옥균처럼 후쿠자와의 문하생으로 있었던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허재영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 106번지

「49일의 남자」

신세대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최근 몇년 사이의 일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24시간 편의점, 운동권과 이념적 영향력의 쇠퇴, 포스트모더니즘, 오렌지족, 소설에 있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저작물 번역 등등, 여러 현상과 유행의 사회학이 낳은 개념이 신세대였다.

그들은 60년대에서 70년 이후의 세대로 비정치적이고 감각적이며 개성강한 소비세대에

속하며 진지하지도 못하고 현실의 무게에 대해 깊이있게 사고하지도 않는다. 신세대문학은 그와 같은 유행의 파도에 실려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보수적인 한국문단과 진보적이라 할 민족문학진영 모두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않은 채, 그러나 신세대문학은 몇몇가지의 저널리즘적 논쟁에 의해 영향력을 잃어가는 기존의 양진영의 방어선을 뚫고 90년대의 새로운 총아로 등장한다. 혼성모방, 표절, 문학의 새가능성, 키취문화론, 신세대감각, 포스트모더니즘논쟁 등.

「49일의 남자」는 어느 문학상의 제2회 수상작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제1회 수상작은 혼성모방·표절논쟁을 뜨겁게 불러일으켰었다. 나는 최근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직 문학적 논쟁이 없었지만 이 작품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8년 동안 소설만을 써왔고 35편의 소설이 있다는 이 꽤기만만한 신인작가의 작품이 다름아닌 또다시 하루키 소설의 구성과 세계관, 창작기법에서 따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루키의 「양을 둘러싼 모험」은 추리소설기법의 소설인데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력자가 죽음 직전에 있어 그와 연고가 있는 양사나이를 1개월 내에 찾아내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추적하는 소설이다. 「49일의 남자」 또한 권력 핵심부에 있는 죽음 직전의 노인이 주인공에게 그와 동거했던 여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해 추적하는 소설이다. 「양을…」의 속편인 「댄스 댄스 댄스」는 이 추적이 계속되는데 그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간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될 수 없이. 「49일의 남자」에서도 그녀를 추적하며 만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하나씩 죽어간다. 이처럼 이 작품은 하루키 소설과 플롯, 추리기법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하루키의 「양을…」이나 다른 소설 「댄스 댄스 댄스」에 나오는 여러 장면이 너무나 흡사하고 빈번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주인공의 직업에서부터 여자관계, 형사의 심문장면, 여러 등장인물, 심지어 고양이에 이르기까지 마치 번안소설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신세대문학」이라 일컬어지는 신세대작가군이 일본의 하루키류에 일정 정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다. 그것은 표절논쟁보다 한국소설독자로서의 자존심에 관한 일이기 때

문이다.

신세대문학이 자기위상이 뚜렷한 새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신세대다운 개성과 창조성의 결핍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49일이 예수부활 후의 새 계시이며, 이집트인의 50일째의 새 부활, 불교에서 50일째 심판받아 지옥·극락에 보내진다는 여러 상징적 이유인 것처럼.

박명기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897-71번지

「길 없는 길」

「부처로부터 흘러내린 佛의 등불이 2천년 동안 꺼지지 않고 활화산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해동(海東)의 우리나라. 그것을 생각했을 때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작가가 「책머리에」 쓴 한구절이다. 87년에 가톨릭에 귀의한 작가 최인호가 쓴 불교소재 소설 「길 없는 길」. 이 소설은 부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맥과 선맥을 한국불교의 근세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한다. 가톨릭에 귀의한 작가가 우연히 한국불교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의 禪詩 한 구절을 만나 3년여 동안 정신적·구도적인 길떠나기와 문학적 체험을 소설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온전히 불교적이지도 않고, 또 독자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는 특이한 소설이다. 70년대 도시적 감수성과 젊은이들의 풍속도를 예리하게 묘사해 큰 선풍을 일으켰던 소위 베스트셀러작가인 최인호의 변신이 포함된다.

최인호의 문학적 변신은 불교를 통해 민족정신의 하나인 불교를 사상사적으로 이어보려는 역사의식과 일반독자들(불교도뿐만 아닌)에게도 어렵지 않고 소설적 감동과 재미를 주는 문학정신이 있어 성공한다.

불가의 법맥으로 불 때 석가세존하 제75세, 임제하 제37세, 태고하 제18세, 청허 12세순으로 일컬어지는 근세사의 우뚝 솟은 봉우리인 대선사 경허성우. 그는 서산대사 청허휴정 이후 200여년 동안 꺼져가던 승유역불시대에 선맥을 부활시킨 대선지식이다.

작품 속에서 해적교수인 강빈은 왕손이었던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경허를 만나게 되지만, 작가는 「경허」라는 화두를 붙잡고 진리를 찾

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근대불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선사 경허는 작가에게 무엇인가. 장자를 천번이나 읽었으며 시재에 탁월했고, 글씨에 뛰어난 6척장신의 거구에다 만행으로 유명한 경허는 아마 초인적이며 대자유인적인 기상으로 진리를 찾아냈던 영혼의 스승은 아니었는지.

이 소설은 부처의 8만의 장경과 모든 스승들의 1천7백개의 화두에 대해 삼화나 사건으로 깨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롭고 감동을 주는건 바로 '경허'의 일생이다. 그는 말술에 고기를 먹기도 했고, 바람처럼 아무도 몰래 속세에 내려와 머슴살이를 하면서 주인집 새색시마님과 통정하기도 한다. 단발령에 항거해 머리를 그대로 길렀고, 문둥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 10여일을 안고 자기도 하며 갑자기 사라져 평안도 강계에서 이름을 바꾸고 혼장노릇을 하다 죽는다. 물흐르는 듯한 문장과 글씨에서 엿볼수 있는 그는 활달하고 거침이 없는 대자유인이었다.

성기애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12-3번지

「獄中書簡」

인간은 누구나 의식하던 못하던 간에 상징적인 獄 안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 안에 살고 있는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에 대해 참다운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쁜 삶은 한가하게 생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베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을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잔인한 생에서 참다운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獄이 적당한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두가 獄을 찾아가서 입학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간접경험으로 히틀러 당시의 목사였던 본 회퍼의 믿음의 글과 편지들을 통해서 참다운 수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옥중서간은 1943년 4월 테겔 육군형무소에 수감된 이래 1945년 1월17일부의 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기까지의 편지를 엮어놓은 것이다. 이 편지는 크게 4개로 분류되어 책으로 꾸며졌다. 첫번째 '十年後'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우리에게 1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삶을 조타하는 필자의 절박한 마음을 들려준다. 그는 이렇게 외친다. "누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설 것인가? 그것은 오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원리, 인간의 자유, 인간의 덕을 궁극의 규범으로 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만 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책임있는 행위를 하도록 부름을 받으면 그러한 것 일체를 희생할 용의가 있는 인간, 그의 생이 하나님의 물음과 부름에 대한 답 이외의 것이기를 원치 않는 책임적인 인간뿐이다. 이러한 책임적인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

두번째는 양친에게 드리는 편지이다. 이 글에서는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쁨은 가정의 기쁨"이라는 장 파울의 글을 인용하면서 양친에게 감사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 승배의 본질은 하늘의 부모이고, 땅의 부모이다. 오늘날 가장 심한 전쟁터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느낀다면, 가정은 우리 모두가 가장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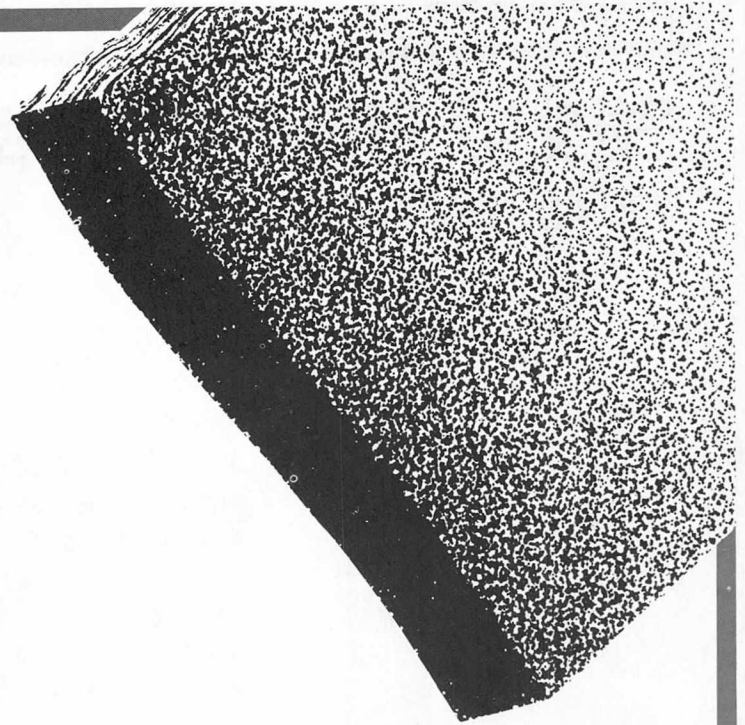
세번째는 어떤 친구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글에서는 한계상황과 대결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한 문제를 적고 있다. 이 한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필자는 기도와 진실을 기초로 한 詩를 통하여 정리하고 있다.

네번째는 생명의 증좌 프리츠 알브레히트 街에서이다. 여기서는 양친에 대한 염려와 그동안의 깨달음을 토로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궁핍에 견딜 수 있는가를 저는 2년 동안에 배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무언가 소유할 권리를 주장할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獄 안에 있으며, 원죄의 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다운 구원이란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본 회퍼는 확실히 알았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뒀가실 것이라는 진리를....."

이호문

서울 동작구 사당5동 190-192호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원화 공급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출판물 유통구조 때문에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는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출판물 종합 유통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5년여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보관과 배송, 그리고 수급 등 영업의 모든 문제를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일원화 공급을 통해 해결한다면 출판사들은 보다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일원화 공급 참여 출판사

- 경연사 • 과학과 예술 • 광문각 • 극동문화 • 기다리 • 대웅출판사 • 대훈사 • 보문당
- 보성사 • 법률신문사 • 사회문화연구소 • 서광사 • 성음각 • 양문각
- 엘멘출판 • 열화당 • 오덕원 • 요가선 • 유림문화사 • 음악예술사 • 이론과실천
- 전통문화연구소 • 전파과학사 • 정문출판사 • 중원문화 • 증권서적(출판부)
- 창조사 • 태성출판사 • 하남출판사 • 한국산업경영연구소 • 한국 여학 개발원
- 한국외대(출판부) • 향학사 • 현대미학사 • 현상과 인식 • 흥문관
- 화평사 • 한겨레 신문(출판국) • 한국문화사 • 한림원

■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 공급위원회

연락처 : <총무부> 전화 716 · 5621~3 팩스 716 · 2995, 716 · 2999 <공급부> 716 · 5616~9